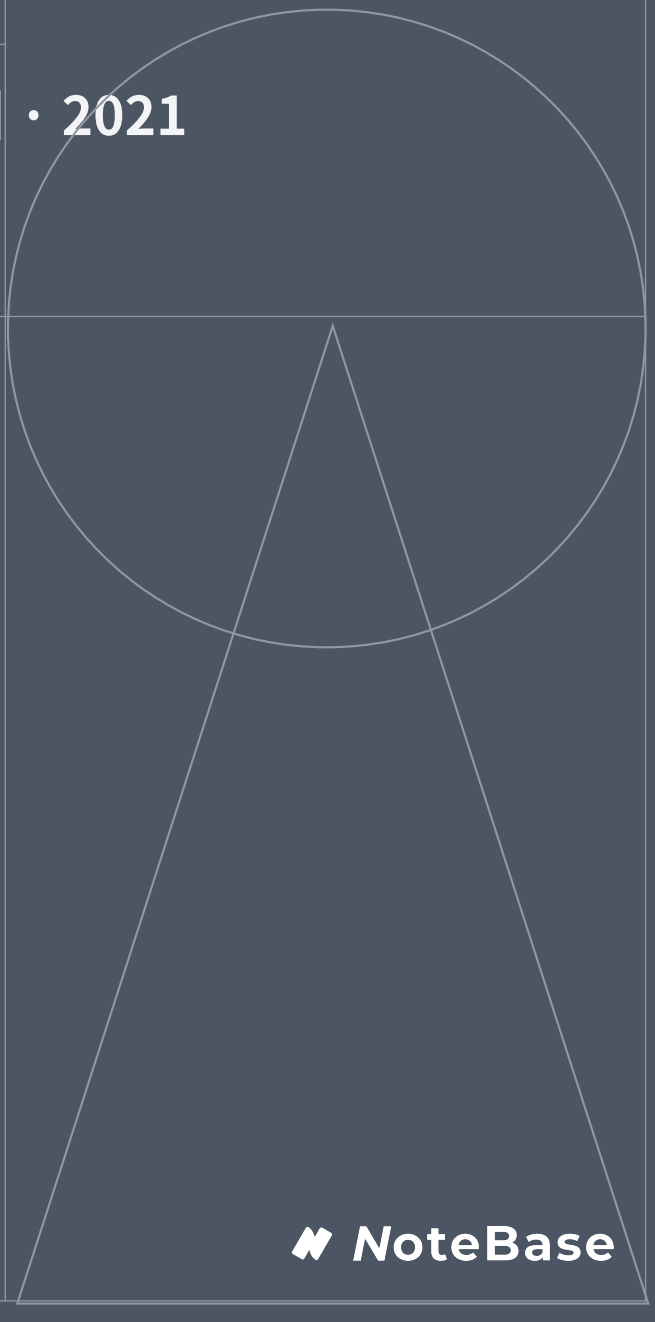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1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1

###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1

문 1.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이 올바른 것은?

① 작년까지만 해도 빛이[비시]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갚았다.
② 이 이야기의 끝을[끄츨] 지금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③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뜻있는[뜨딘는] 상을 받게 되었다.
④ 큰누나가 요리를 하는지 부엌에서[부어게서] 소리가 들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뒤 요소가 조사·어미·접미사인지 실질 형태소인지에 따라 연음 방식이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접미사 앞에서는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본래 소릿값대로 발음한다. 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빛이'의 '이'는 조사이므로 받침 ㅈ을 본래 소릿값대로 연음하여 [비지]로 발음한다. [비치]가 아니라 [비지]가 올바른 발음이다.
② X — '끝을'의 '을'은 조사이므로 받침 ㅌ을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끄틀]로 발음한다. [끄츨]이 아니라 [끄틀]이 올바른 발음이다.
③ O — '뜻있는'은 '뜻' 뒤에 실질 형태소 '있는'이 이어진 말이므로 받침 ㅅ을 대표음 ㄷ으로 바꾼 뒤 연음하여 [뜨딘는]으로 발음한다.
④ X — '부엌에서'의 '에서'는 조사이므로 받침 ㅋ을 본래 소릿값대로 연음하여 [부어케서]로 발음한다. [부어게서]가 아니라 [부어케서]가 올바른 발음이다.

**오답 포인트**

받침을 뒤 음절로 옮긴다는 점만 보고 ㅈ·ㅌ·ㅋ의 소릿값을 서로 바꾸기 쉽다. 특히 ③은 ①·②·④와 달리 조사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 '있는'이 이어지므로,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뜨딘는]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받침 뒤 요소가 조사·어미·접미사인지 확인한다. 그러한 형식 형태소이면 받침의 본래 소릿값대로 연음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뒤 연음한다.

**암기 포인트**

조사·어미·접미사 앞은 제 음가대로 연음, 실질 형태소 앞은 대표음으로 바꾼 뒤 연음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부분의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은?
① 주전 선수들의 잇딴 부상으로 선수가 부족하다.
②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③ 우리는 음식을 만들려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④ 오랜만에 선생님을 뵐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의 올바른 활용과 표기를 묻는다.

### 핵심 개념

'잇달다'는 어떤 일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뜻이며, 관형사형은 '잇단'이다. '띠다'는 표정이나 빛깔을 나타내다는 뜻으로 쓰이고, '뵈다'는 '보다'의 높임말이며, '설렌다'는 '설레다'의 현재 활용형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잇딴'은 잘못된 표기이다. '잇달다'의 관형사형인 '잇단'을 써서 '주전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선수가 부족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미소를 띠다'는 얼굴에 미소가 나타난다는 뜻이므로 '미소를 띠고'는 올바른 표현이다.

③ O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려고'를 쓰므로 '음식을 만들려고'는 올바른 표현이다.

④ O
'뵈다'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뵐'과 '설레다'의 현재 활용형인 '설렌다'는 모두 올바른 표현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의 '잇딴'은 '잇따른'과 형태가 비슷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잇달다'의 관형사형은 '잇단'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의 기본형을 먼저 찾고 어미를 결합해 본다. '잇달다'의 관형사형은 '잇단'이고, '잇따르다'의 관형사형은 '잇따른'이므로 '잇딴'은 틀린 표기라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연이어 생긴 일은 '잇단', 미소는 '띠다', 사람은 '뵙다·뵈다', 마음은 '설레다'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틀린 것은?
① 그녀는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세세히 기록했다.
② 그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히 외국어 공부를 했다.
③ 우리는 회사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④ 형은 내 친구의 태도를 섭섭히 여겼다고 나에게 말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부사의 끝음절을 '-이'와 '-히' 중 어느 것으로 적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면 '-이'로 적고, '히'로만 소리 나거나 '이'와 '히'로 소리 나면 '-히'로 적는다. 이 문항에서는 '틈틈이'와 '세세히·꼼꼼히·섭섭히'의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세세히'는 '매우 자세하게'라는 뜻의 부사로, '-히'를 쓰는 표준 표기이다. 따라서 '일을 세세히 기록했다'는 바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틈틈히'이다. 이 부사는 끝음절을 '이'로 적으므로 '틈틈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그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꼼꼼히'는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히'를 쓰는 표준 표기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는 바르다.
④ O — '섭섭히'는 '섭섭한 마음으로'라는 뜻의 부사로, '-히'를 쓰는 표준 표기이다. 따라서 '태도를 섭섭히 여겼다'는 바르다.

**오답 포인트**

'틈틈이'는 앞말 '틈틈'의 반복 형태에 이끌려 '틈틈히'로 잘못 적기 쉽다. 반대로 '꼼꼼히'까지 같은 유형으로 보고 '꼼꼼이'로 적으면 안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비슷해 보이는 반복 음절만 보고 '-이'와 '-히'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부사를 문장 밖으로 꺼내 표준 표기를 하나씩 확인한다. 특히 '틈틈이'는 '-이', '세세히·꼼꼼히·섭섭히'는 '-히'로 적는다는 구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틈틈이는 '이', 세세히·꼼꼼히·섭섭히는 '히'이다.

NoteBase

문 4.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나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모두 통계나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되는 통계적·수학적 개념들도 상식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다만 가끔은 신비로워야 할 세상사를 모두 일련의 법칙으로 풀어내는 방식에 다소간의 저항감을 갖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또한, 책에 등장하는 일부 사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구입하면 그중의 하나는 반드시 1등 당첨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개념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현실의 국면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사례를 통해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 (가) ](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① 目不識丁　② 牽強附會
③ 緣木求魚　④ 不問可知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핵심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한자 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견강부회(牽強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그럴듯하게 만드는 태도이다.
제시문은 현실의 국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사례를 들어 주장을 펴는 방식을 비판하므로 견강부회가 알맞다.
목불식정(目不識丁)은 아주 간단한 글자조차 모를 만큼 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단을 써서 이루지 못하는 일, 불문가지(不問可知)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目不識丁(목불식정) X
'글을 전혀 모름'을 뜻하므로 억지스러운 사례로 주장을 펴는 태도와 관계가 없다. 틀린 성어 '목불식정'은 이 문맥에서 '견강부회'로 고쳐야 한다.

② 牽強附會(견강부회) O
현실에 꼭 들어맞지 않는 사례를 끌어와 주장을 펴는 일을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끌어다 붙임'이라는 뜻의 견강부회로 표현할 수 있다.

③ 緣木求魚(연목구어) X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쓰는 일을 뜻한다. 제시문은 수단 선택의 잘못이 아니라 사례를 억지로 주장에 결부하는 태도를 비판하므로, '연목구어'가 아니라 '견강부회'가 알맞다.

④ 不問可知(불문가지) X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음'을 뜻하므로 제시문의 비판적 맥락과 맞지 않는다. '불문가지'가 아니라 '견강부회'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제시문에 수학·통계와 현실 사례가 함께 나오므로 '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을 뜻하는 연목구어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사례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억지로 끌어온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에서 글쓴이가 비판하는 행동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 '근거가 잘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주장에 붙인다'이면 견강부회,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일을 이룰 수 없다'이면 연목구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억지로 끌어다 붙이면 견강부회,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면 연목구어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① 작품 내적 사건들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통해 비애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③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시구를 통해 시적 대상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속세를 등진 시적 화자의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백석의 「여승」에서 사건의 시간 구성, 정서적 시어, 공감각적 심상,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심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핵심 개념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의 장면을 먼저 제시한 뒤 과거의 사연을 회상하는 방식이다.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의 말로 옮겨 표현하는 심상이다. 또한 시적 화자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사연을 전하는 존재이며, 시 속 여인은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므로 두 존재의 감정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첫머리에서 여승이 된 현재의 모습을 먼저 보여 준 뒤, 금점판에서 여인을 만난 과거와 남편의 실종, 딸의 죽음, 삭발로 이어진 사연을 회상한다. 따라서 작품의 내적 사건을 시간의 순서와 다르게 거슬러 제시한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난다.

② O — '파리한', '차게 울었다', '돌무덤', '슬픈 날', '눈물방울'과 같은 시어가 여인의 고단하고 비극적인 삶을 부각하여 작품의 비애 정서를 형성한다.

③ O —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는 청각적 대상인 울음을 촉각적 감각인 '차게'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는 남편을 잃고 딸을 때리며 우는 여인의 차갑고 쓸쓸한 심리를 드러낸다.

④ X — 틀린 표현은 '시적 화자의 심리적 고통'과 '향수'이다. 가족과의 이별과 상실을 겪은 존재는 시적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인 여인이다. 올바르게는 남편의 실종과 어린 딸의 죽음으로 가족이 해체된 여인의 비극적 삶과 슬픔을 표현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시적 화자가 여인의 사연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연 속 감정까지 모두 화자의 감정은 아니다. ④는 여인의 가족 상실을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향수'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리를 묻는 선지에서는 먼저 그 감정을 실제로 겪는 주체가 화자인지 시적 대상인지 확인한다. 이어 감정의 원인이 작품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지 대조한다. 이 작품에서는 가족을 잃은 주체가 여인이므로 핵심 정서는 여인의 비애이며, 화자의 향수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여승」은 현재의 여승에서 과거의 가족사로 거슬러 가며, 가족 해체로 인한 여인의 비애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 ~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한다. 기존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심리 경향을 말한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이점은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이점은 행동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정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반대 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기억해 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표현이 가리키는 정보가 자신의 기존 신념·견해와 일치하는지, 반대되는지를 문맥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이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심리 경향이다. ㄱ·ㄴ·ㄹ은 기존 신념이나 지지 성향에 반대되는 정보를 나타내지만, ㄷ은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X
'그렇지 않은 정보'는 바로 앞의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가 아닌 정보, 곧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뜻한다. 성격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반대 정보에 해당한다.

② ㄴ X
'그에 반대되는 정보'에서 '그'는 기존의 믿음이나 견해를 가리키므로, ㄴ은 기존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뜻한다. 성격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반대 정보에 해당한다.

③ ㄷ O
'그러한 정보'는 앞 문장의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ㄱ·ㄴ·ㄹ이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ㄷ은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④ ㄹ X
'반대 당 후보의 주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정보이다. 성격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기존 입장과 충돌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ㄷ의 '그러한'을 단순한 지시 표현으로만 보면 ㄱ·ㄴ과 같은 부류라고 오해하기 쉽다. 지시어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가리키는 내용이 '일치 정보'인지 '반대 정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앞 문장에서 찾아 풀어 쓴 뒤, 같은 의미 범주끼리 묶는다. 이 글에서는 ㄱ·ㄴ·ㄹ이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 ㄷ이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ㄱ·ㄴ·ㄹ은 반대 정보, ㄷ은 일치 정보이다.

NoteBase

문 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당신이 런던과 파리의 호텔 요금을 비교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여섯 살짜리 딸을 컴퓨터 앞으로 보내 인터넷 검색을 시킨다. 왜냐하면 딸의 컴퓨터 실력이 당신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 아이는 1박에 180유로인 파리의 호텔 요금이 1박에 150파운드인 런던의 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말할 것이다.
>
> 당신은 아이에게 파운드와 유로의 차이를 설명할 것이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아이로 하여금 두 통화 간의 환율을 찾게 할 것이다. 아이는 1유로와 1파운드가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아이는 간단한 산수를 통해 180유로는 약 216달러, 150파운드는 약 210달러여서 겉으로 보이는 차이보다 실제의 차이는 훨씬 작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위를 비교 가능한 동일한 단위로 바꾸기 전까지 다른 나라의 통화가 나타내는 숫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파운드와 유로 간의 환율이 동일한 단위인 달러로 얼마인가의 여부이다.
>
> 이러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오늘날의 1달러는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60년 전의 1달러와 같지 않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50년에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던 상품을 2011년 현재에 구매하려면 9.37달러가 필요하다. 따라서 1950년과 2011년 간 통화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달러 가치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로와 파운드로 표시된 금액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부정확해진다. 이는 [ (가) ]

① 인터넷의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 과거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 유로의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④ 1950년과 2011년 달러의 가치 차이가 유로와 파운드의 2011년 현재 가치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같은 시점의 서로 다른 통화를 환율로 비교하는 것과 서로 다른 시점의 같은 통화를 구매력으로 비교하는 것의 차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 핵심 개념

환율은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통화를 공통 단위로 바꾸는 비율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상승시켜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액수의 화폐로 살 수 있는 양, 즉 화폐의 구매력을 낮춘다. 따라서 2011년의 유로와 파운드는 당시 환율로 비교할 수 있지만, 1950년의 1달러와 2011년의 1달러는 액면이 같아도 구매력이 다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인터넷의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은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통화를 비교할 때 환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과거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글은 1950년의 1달러로 살 수 있던 상품을 2011년에 사려면 9.37달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과거와 현재의 구매력 차이를 비교한다. 올바르게는 과거 화폐의 구매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 유로의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글에는 유럽의 경제 위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올바르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50년과 2011년 사이 달러의 구매력이 크게 달라졌다는 내용이다.
④ O — 1950년의 1달러는 2011년의 9.37달러에 해당하므로 두 시점의 달러 가치 차이는 크다. 반면 2011년 당시 180유로는 약 216달러이고 150파운드는 약 210달러이므로 같은 시점의 유로와 파운드 가치 차이는 그보다 작다. 따라서 이 선지가 빈칸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다.

### 오답 포인트

환율 문제처럼 보이는 표면에만 주목하면 ①이나 ③을 고르기 쉽다. 핵심은 '서로 다른 통화의 같은 시점 비교'와 '같은 통화의 서로 다른 시점 비교'를 구분하는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의 '더 부정확해진다'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말인지 먼저 찾는다. 같은 시점의 통화끼리는 환율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변화까지 반영한다.

### 암기 포인트

통화 간 비교는 환율, 시점 간 비교는 구매력이다.

NoteBase

문 8. (가)와 (나)가 모두 포함된 문장은?

| |
|---|
| (가) 명사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br>(나)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 |

①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자.
② 나는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③ 아이들조차 학교 운동장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린다.
④ 그는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차분하게 행동하였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명사가 뒤의 체언을 꾸며 관형어로 쓰인 경우와 형용사가 용언을 꾸며 부사어로 쓰인 경우를 모두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품사와 문장 성분은 구별해야 한다. 명사는 '시험 날짜'의 '시험'처럼 뒤의 명사를 꾸며 관형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는 '차분하게 행동하다'의 '차분하게'처럼 '-게'의 형태로 용언을 꾸며 부사어가 될 수 있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두려운'은 형용사 '두렵다'가 '마음'을 꾸미는 관형어이고, '새'는 관형사이다. 따라서 명사가 관형어로 쓰인 (가)와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인 (나)가 모두 없다. 틀린 판단은 '두려운'을 명사의 관형어 쓰임으로 보는 것이며, 명사의 관형어 쓰임은 '시험 날짜'의 '시험'과 같은 형태이다.
② X — '호수'는 명사로서 '주변'을 꾸미므로 (가)에 해당하지만, '깊은'은 형용사 '깊다'가 '상념'을 꾸미는 관형어이므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깊은'을 부사어로 보는 것이며, 형용사의 부사어 쓰임은 '깊게 잠겼다'의 '깊게'와 같은 형태이다.
③ X — '학교'는 명사로서 '운동장'을 꾸미므로 (가)에 해당하지만, '무심코'는 본래 부사이지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인 것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무심코'를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며, 형용사 '무심하다'가 부사어로 쓰이면 '무심하게 쓰레기를 버린다'와 같은 형태가 된다.
④ O — '시험'은 명사로서 '날짜'를 꾸미는 관형어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차분하게'는 형용사 '차분하다'의 활용형으로서 동사 '행동하였다'를 꾸미는 부사어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오답 포인트

'두려운'과 '깊은'은 형용사이지만 관형어이고, '무심코'는 부사이면서 부사어이다. 형용사라는 품사와 관형어·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을 섞어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③의 '무심코'가 부사어라는 사실만 보고 (나)로 판단하기 쉽지만, (나)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를 요구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꾸밈을 받는 말이 체언인지 용언인지 확인하여 관형어와 부사어를 가른다. 그다음 꾸며 주는 말의 원래 품사를 확인한다. '명사 → 체언 수식'과 '형용사의 활용형 → 용언 수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시험(명사) → 날짜(체언): 관형어, 차분하게(형용사 활용형) → 행동하였다(용언): 부사어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의 '에'와 가장 가까운 것은?

> 우리는 더운 여름날이면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젖은 옷을 ㉠ 햇볕에 말리고는 했다.

① 매일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동생의 몫이었다.
② 나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깨서 한동안 뒤척였다.
③ 예전에는 등잔불에 책을 읽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④ 어머니께서 끓여 주신 차는 특히 감기에 잘 듣는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부사격 조사 '에'가 문장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조사 '에'는 문맥에 따라 장소, 도착점, 원인, 수단·매개, 대상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 '햇볕에 말리다'의 '에'는 햇볕을 이용하여 옷을 말린다는 수단·매개의 뜻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화분에'의 '에'는 물이 닿는 대상 또는 도착점을 나타낸다. 틀린 부분은 ㉠과 의미가 같다고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화분을 대상으로 하여 물을 주다'의 뜻이다.
② X — '소리에'의 '에'는 잠을 깨게 된 원인을 나타낸다. 틀린 부분은 이를 수단·매개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요란한 소리 때문에 잠을 깨다'의 뜻이다.
③ O — '등잔불에 책을 읽다'는 등잔불을 이용하여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에'가 수단·매개를 나타내므로 ㉠의 '햇볕에 말리다'와 가장 가깝다.
④ X — '감기에'의 '에'는 차의 효능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틀린 부분은 이를 수단·매개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감기를 대상으로 효능이 잘 나타나다'의 뜻이다.

###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같은 형태의 조사 '에'가 쓰였지만 의미 관계는 서로 다르다. 특히 ②의 원인과 ③의 수단·매개를 혼동하기 쉽다. ㉠은 '햇볕 때문에'보다 '햇볕을 이용하여'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를 문맥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에'를 '때문에'로 바꿀 수 있으면 원인, '을/를 이용하여'로 바꿀 수 있으면 수단·매개, 어떤 행위나 효력이 미치는 곳을 가리키면 대상 또는 도착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햇볕에 말리다 = 햇볕을 이용하여, 등잔불에 읽다 = 등잔불을 이용하여이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백주에 일어난 사건에 주민들은 모두 경악했다.
②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③ 그의 소식을 알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다.
④ 형은 시험지의 여백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를 풀었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리는 같지만 뜻과 한자가 다른 동음 한자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白은 '희다, 깨끗하다, 밝다'의 뜻을 나타내며 백주(白晝), 결백(潔白), 여백(餘白)에 쓰인다. 百은 '일백, 많다'의 뜻을 나타내며 백방(百方)에 쓰인다. 따라서 ①·②·④의 '백'은 白이고, ③의 '백'만 百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백주(白晝)는 '환한 대낮'을 뜻하므로 '백'은 白이다. ②·④와 같은 한자이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③의 백방(百方)이 다른 한자를 쓴다.
② X — 결백(潔白)은 '행동이나 마음이 깨끗함'을 뜻하므로 '백'은 白이다. ①·④와 같은 한자이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③의 백방(百方)이 다른 한자를 쓴다.
③ O — 백방(百方)은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을 뜻하므로 '백'은 百이다. 나머지 선지의 白과 다른 한자를 쓴다.
④ X — 여백(餘白)은 '남아 있는 빈 부분'을 뜻하므로 '백'은 白이다. ①·②와 같은 한자이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③의 백방(百方)이 다른 한자를 쓴다.

###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의 밑줄 친 글자가 '백'으로 발음되어 소리만 보면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백방의 '백'을 '희다'의 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백방은 '많은 방도'를 뜻하므로 百方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음절만 보지 않고 단어 전체의 뜻을 먼저 풀이한 뒤 그 뜻에 맞는 한자를 대응한다. '밝음·깨끗함·빈 흰 부분'은 白, '많은 방법'은 百으로 구별한다.

### 암기 포인트

백주·결백·여백은 白, 백방은 百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은?

> 인화가 눈물을 지으며 이르되,
> "나는 무슨 죄로 포락지형(炮烙之刑)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내 낯을 지지고, 딱딱하게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다 날 시키니 내 서럽고 괴로움을 측량하지 못할레라."
> 울 낭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르되,
> "나는 그대와 맡은 바가 같고 욕되기도 한가지라. 자기 옷을 문지르려고 내 목을 잡아 들어서는 있는 힘껏 우겨 누르니, 하늘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야 내 목이 떨어져 나갈 뻔한 적이 몇 번인 줄 알리오."
> 칠우가 이렇듯 담론하여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칠우에게 말하기를,
> "칠우는 내 허물을 이와 같이 말하느냐."
> ㉠ 감토 할미 머리를 조아리며 이르되,
> "젊은것들이 망령되어 생각이 없는지라. 저희들이 재주는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고 급기야 원망까지 하였으니 마땅히 곤장을 맞을 만하되, 평소의 깊은 정과 저희의 작은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어떨까 하나이다."
> 여자 답하여 이르기를,
>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리니, 내 손부리가 성한 것이 다 할미의 공이라.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그 가운데 넣고서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 하니,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사례를 표하고 칠우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더라.
>
>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에서 –

① 바늘　② 가위
③ 인두　④ 골무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인화된 사물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그 사물의 정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 '감토 할미'는 바느질할 때 손가락 끝에 끼워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골무를 의인화한 인물이다. '손부리가 성한 것이 다 할미의 공'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보호하는 기능을, '꿰차고 다니며'라는 말은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바늘은 천을 꿰매는 도구이므로 손가락을 보호하며 끼고 다닌다는 ㉠의 말과 맞지 않는다. '바늘'이 아니라 '골무'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가위는 천이나 실을 자르는 도구이므로 '손부리'를 성하게 해 준다는 기능과 맞지 않는다. '가위'가 아니라 '골무'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인두는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을 펴거나 눌러 다듬는 도구로, 손가락에 끼워 보호하는 물건이 아니다. '인두'가 아니라 '골무'로 고쳐야 한다.
④ O — 골무는 바느질할 때 손가락 끝에 끼워 바늘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한다. ㉠의 말과 행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오답 포인트

작품에 여러 바느질 도구가 함께 의인화되어 있어 도구의 이름만 떠올리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이 직접 밝힌 '손부리 보호'와 '꿰차고 다님'이 골무의 기능과 사용 방식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인화된 사물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물의 이름보다 대사 속 기능과 사용 동작을 먼저 찾는다. 손가락을 보호하고 손가락 끝에 끼우는 도구이면 골무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손부리를 보호하고 꿰차는 감토 할미는 골무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집에 오니 어머니는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
> "그 꽃은 어디서 났니? 퍽 곱구나."
>
>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엄마 드릴라구 유치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가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
> "응,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주라구 줘."
>
> 하고 불쑥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
>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
> "옥희야, 그런 걸 받아 오문 안 돼."
>
>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
> "옥희야, 너 이 꽃 이 얘기 아무보구두 하지 말아라, 응."
>
>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나는,
>
> "응."
>
>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닥까닥하였습니다.
>
>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하였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밤 자도록 그 꽃은 거기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꽃이 다 시들자 어머니는 가위로 그 대는 잘라 내버리고 꽃만은 찬송가 갈피에 곱게 끼워 두었습니다.
>
>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

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인물의 심리도 함께 서술한다.

②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까지 파악하고 있다.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이야기 속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정답 4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자가 작품 안팎 중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행동과 심리를 어떤 범위까지 전달하는지를 바탕으로 소설의 시점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중심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나'는 자신의 생각은 직접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내면은 행동·표정·말투를 통해 짐작할 뿐 직접 알 수 없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폭넓게 서술하며,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외면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나'는 자신의 생각은 직접 밝히지만 어머니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지는 않는다.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처럼 어머니의 표정·목소리·행동을 보고 추측한다. 틀린 표현은 '다른 인물의 심리도 함께 서술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다른 인물의 외적 반응을 관찰하고 그 심리를 짐작한다'이다.
② X — 서술자인 '나'는 사건에 참여하는 작품 속 인물이므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아니다. 또한 어머니의 내면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와 '인물의 내면까지 파악'이며, 올바르게는 '작품 내부의 인물인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한다'이다.
③ X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에서 관찰하는 방식은 작가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나', '내가', '나는'이 반복되어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작품 밖의 서술자'와 '자신의 주관을 배제'이며, 올바르게는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며 사건을 관찰해 서술한다'이다.
④ O — 이야기 속 인물인 옥희가 '나'라는 서술자가 되어 어머니의 표정, 목소리, 행동을 관찰하며 사건을 전한다. 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의 '다른 인물의 심리도 함께 서술한다'가 핵심 함정이다.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고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듯이', '처럼'이라는 표현은 서술자가 어머니의 내면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외적 반응을 통해 추측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자가 '나'인지 확인한 뒤, '나'가 자기 경험의 중심인물인지 다른 중심인물을 관찰하는 인물인지 구분한다. 이어 다른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는지, 표정·행동·말투로만 짐작하는지 살피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작품 속 '나'가 중심인물을 관찰하고,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추측만 한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작품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둑에 풀빛 더욱 짙어졌는데
> 送君南浦動悲歌 남포(南浦)에서 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린다.
>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언제나 다할 것인고?
>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흘린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
> — 정지상, 「송인」 —

① 청산(靑山)는 엇뎨ᄒᆞ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뎨ᄒᆞ야 주야(晝夜)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② 백구(白鷗)ㅣ야 말 무러보쟈 놀라지 마라스라
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듸 어듸 ᄇᆞ렷ᄃᆞ니
날ᄃᆞ려 자세(仔細)히 닐러든 네와 게 가 놀리라.

③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이시라 ᄒᆞ더면 가랴마ᄂᆞᆫ 제 구ᄐᆡ야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情)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④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ᄒᆞᆫ 강파(江波)는 보내ᄂᆞ니 ᄇᆞ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제시된 작품과 각 선지의 시적 상황 및 화자의 정서를 비교하여, 이별에서 비롯된 슬픔과 그리움이 공통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정지상의 「송인」은 남포에서 임을 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한시이다. 해마다 흘린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의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과 임을 향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정서가 유사한 작품은 소재가 비슷한 작품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중심 감정이 같은 작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하리라'에는 청산과 유수처럼 변함없이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드러난다.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 중심 정서라는 판단은 틀리며, 바르게 고치면 변함없는 절개와 지조를 다짐하는 정서이다.
② X — '너와 게 가 놀리라'에는 백구와 함께 명승지를 찾아 자연 속에서 노닐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 중심 정서라는 판단은 틀리며, 바르게 고치면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소망과 풍류의 정서이다.
③ O —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과 '보내고 그리는 정'에는 임을 붙잡지 못하고 보낸 뒤 후회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송인」과 가장 유사하다.
④ X — '이 몸이 서늘해옴도 역군은이샷다'에는 강호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만족과 그 평안함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마음이 드러난다.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 중심 정서라는 판단은 틀리며, 바르게 고치면 강호 생활의 만족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중심 정서이다.

**오답 포인트**

'송인'의 강물·풀빛과 ②·④의 자연 소재만 보고 정서가 비슷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자연물은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일 뿐이다. 제시 작품의 '보내니', '슬픈 노래', '이별의 눈물'과 ③의 '보내고 그리는 정'을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화자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시어를 찾는다. 이 작품에서는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이별의 눈물'이 핵심이므로 '임을 보낸 뒤 그리워한다'는 ③과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송인」은 남포에서의 이별, 대동강은 이별의 눈물, 중심 정서는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NoteBase

문 14.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이뿐만 아니라 중앙부의 돌길 좌우에는 정일품부터 종구품의 품직을 새겨 넣은 품석(品石)들이 중앙부의 돌길보다 낮은 위치에 세워져 있어 마치 만조백관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왕을 호위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 왕이 거처하는 궁궐은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좁게는 궁궐 안의 돌길에서부터 넓게는 부속 건물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궁궐 안의 크고 작은 부분들에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다) 예를 들어, 경복궁의 중문(中門)에서부터 왕이 조회를 행하던 근정전 사이에는 세 겹의 돌길이 나란히 놓여 있다. 중앙의 돌길은 양측의 돌길보다 높이 솟아 있으며, 이곳은 왕만이 지나갈 수 있었다. 중앙의 돌길은 근정전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데, 이는 왕의 정사(政事)가 조금의 막힘도 없이 순탄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조선의 궁궐은 신하를 포함한 백성들의 삶을 높은 곳에서 굽어살피고 어루만지는 절대적인 존재가 왕이라는 의미를 외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왕의 보살핌 아래 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 역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궁궐은 조선 전체를 작게 옮겨 놓은 일종의 축도(縮圖)와 같다.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다) – (가) – (라)
③ (나) – (라) – (가) – (다)
④ (나) – (라) – (다) – (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내용과 지시 표현을 근거로 일반 진술, 구체적 예시, 추가 예시, 종합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나) — 궁궐의 모든 요소가 왕의 권위를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는 중심 내용을 제시한다.
2. (다) — ‘예를 들어’로 시작하여 (나)에 언급된 궁궐 안의 돌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가) — ‘이뿐만 아니라’로 앞의 돌길 사례에 품석 배치라는 사례를 추가한다.
4. (라) — ‘이와 같이’로 앞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조선 궁궐의 의미를 결론짓는다.

왜 이 순서인가: (다)는 (나)의 일반 진술에 대한 예시이고, (가)는 그 예시를 추가하며, (라)는 앞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문단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이뿐만 아니라’는 앞에서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하므로 (가)가 (다)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부분은 ‘(나)-(가)-(다)-(라)’이며, 올바르게는 ‘(나)-(다)-(가)-(라)’이다.

② O — (나)의 일반적 설명 뒤에 (다)의 돌길 사례와 (가)의 품석 사례가 이어지고, (라)가 ‘이와 같이’로 전체를 종합하므로 자연스럽다.

③ X — (라)의 ‘이와 같이’는 앞의 여러 설명을 종합하는 표현이므로 추가 사례인 (가)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부분은 ‘(나)-(라)-(가)-(다)’이며, 올바르게는 ‘(나)-(다)-(가)-(라)’이다.

④ X — (라)는 종합·결론 문단이므로 (나) 바로 뒤에 둘 수 없고, (가)의 ‘이뿐만 아니라’도 앞선 구체적 사례인 (다)를 필요로 한다. 틀린 부분은 ‘(나)-(라)-(다)-(가)’이며, 올바르게는 ‘(나)-(다)-(가)-(라)’이다.

**오답 포인트**

내용이 모두 왕의 권위라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점만 보고 배열하면 순서를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는 일반 진술 뒤의 첫 사례, ‘이뿐만 아니라’는 앞선 사례 뒤의 추가 사례, ‘이와 같이’는 전체 설명 뒤의 종합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중심 내용을 넓게 제시하는 문단을 찾고, ‘예를 들어’와 같은 예시 표지, ‘이뿐만 아니라’와 같은 추가 표지, ‘이와 같이’와 같은 종합 표지의 선후 관계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진술 → 첫 예시 → 추가 예시 → 종합: (나) → (다) → (가) → (라)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성공의 판타지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거머쥐는 소수의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다수의 실패자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본선에 오른 십여 명의 성공을 화려하게 비추는 대신, 본선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수백만 명의 실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방정식은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정언명령 앞에서 이상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지극히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직 부족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인 것처럼 보인다. 슬라보이 지젝이 "왜 오늘날 그 많은 문제들이 불평등, 착취 또는 부당함의 문제가 아닌 불관용의 문제로 여겨지는가?"라고 말했듯, 이 성공의 판타지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이 관용과 불관용이라는 문화적 차원으로 환원돼 버리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영웅의 존재 때문에 능력과 노력이라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된다.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②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은 탈락한 대다수의 실패자들을 주목하지 않는다.
③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제시한다.
④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회적 문제들은 성공한 소수의 존재로 인해 개인적 차원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공의 판타지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 문제로 바꾸어 인식하게 한다는 글의 핵심 논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성공의 판타지: 소수의 성공 사례를 앞세우고 다수의 실패는 가림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관념이다.
이 판타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의 문제로 환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글에서 자본주의의 경쟁은 실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비판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글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 실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은 소수의 성공 사례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이다.
② O —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은 본선에 오른 십여 명의 성공은 화려하게 비추지만, 본선에 오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실패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O —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정언명령이 제시되므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제시한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④ O — 글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사회적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소수의 영웅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라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글에 나온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글쓴이가 인정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표현은 성공의 판타지가 만들어 내는 외양을 설명한 것이며, 글쓴이는 실제로는 다수의 실패와 구조적 불평등이 가려진다고 비판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판적 글에서는 대상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과 '그렇게 보이거나 인식된다'는 것을 구분한다. 소수의 성공 사례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은폐하는지 확인하면 글쓴이가 비판하는 표면적 인식과 실제 주장을 가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소수의 성공은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고,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 문제로 바꾼다.

NoteBase

문 16. (가) ~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데이비드슨 박사는 뇌파 전위 기록술인 'EEG'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행복 또는 불행한 사람들의 두뇌 활동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비대칭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좌뇌와 우뇌에 대한 뇌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경우, 좌측 전두엽이 우측 전두엽에 비해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불행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경우,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 그는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신생아들에게 빨기 좋은 물건을 주고 뇌의 활성화 패턴을 측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코미디 영화를 보여 주고서는 한창 즐거워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실험 결과, 위의 가정에 부합하였는데, 신생아들은 주어진 물건을 빨면서 즐거워할 때 [ (가) ] 전두엽이 [ (나) ] 전두엽에 비해 더 활성화되었다. 반면, 빨고 있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
> 두 번째 실험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험 대상에게 코미디 영화를 보여 주었을 때 [ (다) ] 전두엽은 [ (라) ] 전두엽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낮았던 반면, 공포 영화를 보여 주었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뇌 과학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좌측 | 우측 | 우측 | 좌측 |
| ② | 좌측 | 우측 | 좌측 | 우측 |
| ③ | 우측 | 좌측 | 우측 | 좌측 |
| ④ | 우측 | 좌측 | 좌측 | 우측 |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에 제시된 감정 상태와 좌·우 전두엽의 상대적 활성화 관계를 두 실험 결과에 적용하여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다.

### 자료 읽는 순서

1. 지문의 가설에서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좌측 전두엽이 우측보다 더 활성화되고, 불행하다고 말한 사람은 그 반대임을 확인한다.
2. 물건을 빨며 즐거워하는 상황에는 행복의 활성화 관계를 적용한다.
3. 코미디 영화에서 활성화 정도가 더 낮은 쪽과 더 높은 쪽을 각각 우측과 좌측에 대응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신생아가 물건을 빨며 즐거워할 때에는 좌측 전두엽이 우측 전두엽보다 더 활성화되므로 (가)는 좌측, (나)는 우측이다. 코미디 영화를 볼 때도 즐거운 상태이므로 좌측 전두엽이 더 활성화된다. 그런데 (다)가 (라)보다 활성화 정도가 낮다고 했으므로 (다)는 우측, (라)는 좌측이다. 따라서 빈칸의 순서는 좌측-우측-우측-좌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 좌측, (나) 우측, (다) 우측, (라) 좌측으로 두 실험의 즐거운 상태에서 좌측 전두엽이 더 활성화된다는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 첫 번째 실험의 (가) 좌측, (나) 우측은 맞지만, 코미디 영화에서 더 낮게 활성화된 (다)를 좌측으로 둔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다)는 우측, (라)는 좌측이다.
③ X — 코미디 영화에 관한 (다) 우측, (라) 좌측은 맞지만, 즐겁게 물건을 빠는 상황에서 (가)를 우측으로 둔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좌측, (나)는 우측이다.
④ X — 두 실험의 대응을 모두 반대로 제시하였다. 올바르게는 (가)는 좌측, (나)는 우측, (다)는 우측, (라)는 좌측이다.

**오답 포인트**

첫 번째 실험은 '더 활성화된 쪽'을 묻지만, 두 번째 실험은 (다)가 (라)보다 '활성화 정도가 낮다'고 표현한다. 코미디의 즐거운 상태에서 좌측이 우세하므로 낮은 쪽인 (다)는 우측이라는 점을 반대로 읽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감정 상태별 우세 반구를 정리한 뒤, 각 문장의 비교 방향을 확인한다. 이 지문에서는 행복·즐거움은 좌측 우세, 불행·공포는 우측 우세이며, 'A가 B보다 낮다'면 A에는 비우세 반구, B에는 우세 반구를 넣는다.

**암기 포인트**

행복·즐거움은 좌측 전두엽 우세, 불행·공포는 우측 전두엽 우세이다.

NoteBase

문 17. ㉠ ~ ㉦을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올바르게 묶은 것은?

> 한때 ㉠ 가족의 종말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유행했었다. 19세기 초에 샤를 푸리에는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동체인 '팔랑스테르'를 만들었고, 그 뒤를 계승한 실험이 유럽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엥겔스는 사유 재산의 종말과 함께 가족 역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어쩌면 유토피아에 대해 꿈꾸는 일은 근본적으로 ㉡ 가족의 개념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가부장제 ㉢ 가족을 사회 구성의 핵심 요소로 제안했지만, 섬 전체가 '한 ㉣ 가족,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단일체의 이상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 가족은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똑같이 생긴 집을 10년마다 바꿔 가며 살아야 한다. 유토피아의 가족은 사회의 거센 바람을 피하는 둥지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 가족이 아닌 ㉦ 가족인 것이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가족'을 기존의 가족 제도와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라는 두 의미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의 '가족'은 종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존의 가족, 곧 사유 재산 및 가부장제와 결부된 통상적인 가족 제도를 뜻한다.
㉣·㉤·㉦의 '가족'은 유토피아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정처럼 결합한 공동체를 뜻한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으면 '㉠, ㉡, ㉢, ㉥ / ㉣, ㉤, ㉦'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은 '기존의 가부장제 가족'을 직접 가리키므로 ㉠·㉡·㉥과 같은 무리에 들어가야 한다. '㉠, ㉡, ㉥ / ㉢, ㉣, ㉤, ㉦'이 아니라 '㉠, ㉡, ㉢, ㉥ / ㉣, ㉤, ㉦'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은 기존의 가족 제도를, ㉣·㉤·㉦은 사회 전체가 하나로 결합한 공동체를 뜻하므로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끼리 바르게 묶었다.
③ X — ㉠은 종말을 맞을 기존 가족 제도이지만 ㉣·㉤·㉦은 유토피아 사회 전체를 가리키므로 같은 무리로 묶을 수 없다. '㉠, ㉣, ㉤, ㉦ / ㉡, ㉢, ㉥'이 아니라 '㉠, ㉡, ㉢, ㉥ / ㉣, ㉤, ㉦'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은 사회 자체가 가족이라는 확대된 공동체의 의미이므로 기존 가족을 뜻하는 ㉠·㉢과 다르고, ㉡은 기존 가족의 개념이므로 ㉣·㉤과 다르다. '㉠, ㉢, ㉦ / ㉡, ㉣, ㉤, ㉥'이 아니라 '㉠, ㉡, ㉢, ㉥ / ㉣, ㉤, ㉦'으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가족'이라는 표면적인 단어가 모두 같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의 '기존의 가부장제 가족'은 종말의 대상인 통상적 가족이고, ㉦의 '사회 그 자체이며 … 가족인 것'은 사회 전체로 확대된 공동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 자체만 보지 않고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문장 속 수식어와 서술어로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종말·기존·가부장제·아닌'과 연결되면 기존 가족 제도이고, '사회적 단일체·사회 그 자체'와 연결되면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이다.

### 암기 포인트

㉠·㉡·㉢·㉥은 기존 가족, ㉣·㉤·㉦은 사회 전체라는 가족이다.

NoteBase

문 18. (가)에 들어갈 반대 신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은 질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한 검증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신문은 '예, 아니요'로 답할 만한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반대 신문은 찬성 측 발언의 허점이나 오류를 짚어 내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

| 찬성 측의 주장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
|---|---|
| 반대 측의 반대 신문 | (가) |

① 건강세 이외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또 다른 효과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② 건강세 도입의 경제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건강세 도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④ 건강세 도입으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국민들이 과세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대 신문이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찬성 측 발언의 허점이나 오류를 드러내야 한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질문을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답변 범위를 좁힌 폐쇄형 질문을 던지고, 그 주장의 모순·근거 부족·부작용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폐쇄형 질문은 보통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으며, 열린 질문인 '무엇', '어떻게', '어디' 등의 의문사 질문과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또 다른 효과적 대안은 무엇입니까?’는 ‘무엇’을 묻는 열린 질문이므로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이 아니다. 또한 찬성 측 주장 자체의 허점이나 오류를 직접 짚기보다 새로운 대안을 요구한다. 올바르게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나 부작용을 특정하여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물어야 한다.

② X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설명을 요구하는 열린 질문이므로 폐쇄형 질문이 아니다. 찬성 측의 견해를 다시 묻는 데 그쳐 주장 속 허점이나 오류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경제성이나 효과성에 관한 구체적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예·아니요로 물어야 한다.

③ X
‘구체적으로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는 ‘어디’를 묻는 열린 질문이므로 폐쇄형 질문이 아니다. 세금 부과 대상을 확인하는 질문일 뿐, 찬성 측 발언의 허점이나 오류를 직접 지적하지도 않는다. 올바르게는 부과 대상이나 부담 전가에서 발생할 문제를 특정하여 예·아니요로 답하도록 물어야 한다.

④ O
‘국민들이 과세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는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이다. 또한 건강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하므로,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운 찬성 측 주장의 허점을 검증하는 질문으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내용이 건강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①·②·③은 각각 ‘무엇’, ‘어떻게’, ‘어디’를 묻는 열린 질문이다. 이 문제에서는 질문 형식이 폐쇄형인지와 질문 내용이 찬성 측 주장의 허점이나 오류를 겨냥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질문이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질문이 상대 주장의 모순·근거 부족·부작용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 판단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가 적절한 반대 신문이다.

**암기 포인트**

반대 신문은 ‘폐쇄형 질문 + 상대 주장 검증’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성 방식에 따라 우리말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파생어는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① '아이가 예쁘다.'의 '예쁘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② '아기를 재우다.'의 '재우다'는 파생 접미사가 포함된 파생어이다.
③ '꽃이 피었다.'의 '피었다'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④ '색깔이 검붉다.'의 '검붉다'는 연결 어미가 없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일어와 복합어의 구분,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복합어 가운데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것은 합성어이고,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은 것은 파생어이다. 어근에 어미가 붙어 활용한 형태는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복합어가 되지는 않는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예쁘다'는 어근 '예쁘-' 하나에 어미 '-다'가 결합한 단일어이다.
② O — '재우다'는 어근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파생 접미사 '-우-'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파생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피었다'는 어근 '피-'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졌지만 단어 형성상 단일어이다. 올바르게는 '피었다는 어근 하나에 어미가 결합한 단일어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검붉다'는 두 어근이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은 '형태소가 둘 이상이면 복합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단일어와 복합어는 단순히 형태소의 개수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근의 수와 파생 접사의 결합 여부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미를 제외하고 단어의 형성 구조를 본다. 어근 하나이면 단일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미는 활용, 접사는 파생이다. 형태소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복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0.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 먼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셨고, 환경부의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B: 네, 반갑습니다.

A: 먼저, 국내 미세 먼지의 주요 오염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 네, 미세 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을 말합니다. 흔히들 봄철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만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A: 아, 우리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 먼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양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우선 국내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대책 수립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B: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오염 물질의 배출 규제를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A: 그렇지만, 모든 규제가 그러하듯이 산업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산업계의 거센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 네, 그렇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제를 이행하는 기업들에 다른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보완 정책도 후속되어야 합니다.

① A는 대화의 주제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대화 참여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② A는 B의 발화를 요약적으로 환언한 뒤 '원인 진단'에서 '대책 수립'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③ B는 미세 먼지의 개념을 정의하며 관련 실태 조사의 미비가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④ A는 '규제 강화'에 대해 예상되는 반발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B의 의견을 이끌어 낸다.

**정답 3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대화 참여자의 발화가 화제 소개, 상대 발화의 요약과 화제 전환, 정보 제공, 추가 의견 유도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실제 대화 내용과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대화의 발화 기능은 말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앞뒤 발화의 관계와 그 발화가 대화의 흐름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판단한다. 요약적 환언은 상대의 핵심 내용을 자기 말로 간추려 확인하는 것이고, 화제 전환은 그 내용을 발판으로 질문의 초점을 새로운 논의 단계로 옮기는 것이다.

###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첫 발화에서 미세 먼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주제를 밝힌 뒤, B가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환경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임을 소개한다.
② O — A는 국외 유입뿐 아니라 국내 자체 배출 오염 물질도 큰 영향을 준다는 B의 발화를 '국내에서도 상당한 양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요약해 되받는다. 이어 '그렇다면'이라고 하며 원인 진단에서 국내 오염원 관리라는 대책 수립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B가 '관련 실태 조사의 미비'를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는 설명이다. B는 미세 먼지가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유해 물질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국외 유입만을 원인으로 보는 인식을 바로잡아 국내 배출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B는 미세 먼지의 개념과 구성 물질을 설명하고, 국외 유입뿐 아니라 국내 배출 오염 물질도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이다.
④ O — A는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과 산업계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에 관한 B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 발화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은 첫 발화에 나온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전문가 소개를 '관련 실태 조사의 미비'라는 문제 원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화에 등장한 비슷한 소재를 결합해 실제로 하지 않은 발화 기능을 만든 것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설명을 대화 속 해당 발화와 직접 대응시킨다. 선지가 제시한 정보가 실제로 언급되었는지, 그 정보의 주체와 역할이 같은지, 앞뒤 발화 사이에서 요약·전환·질문·의견 유도 기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대화 분석은 '무슨 말을 했는가'와 '그 말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함께 확인한다. 등장한 소재라도 주체·맥락·기능이 달라지면 틀린 설명이다.

NoteBase